



2012년 10월 24일(수)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모기지은행협회(MBA), 내년 중 모기지 금리 상승 전망
- 2) 벤 버냉키 연준(FRB)의장, 사임 의사 표명
- 3) 미국,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부상 예상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유로존 민간경제, 경제침체 확산
- 2) 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총재, 디플레이션 위험 경고
- 3) WTO, 미-중 자동차 반덤핑관세 심리패널 구성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JP 모건,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량 손실 기록
- 2) 포드자동차, 2014년 벨기에 공장 폐쇄 결정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모기지은행협회(MBA), 내년 중 모기지 금리 상승 전망

- 美모기지은행협회(MBA)는 지난 10월24일(현지시간) 시카고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에서 금년 중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내년부터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
  -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금년 4/4분기 중 평균 3.8%를 기록
  - 오는 2013년 1/4분기 3.9%로 상승 후 4/4분기중 4.4%까지 상승 예상, 연평균 금리는 4.1%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다만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연준(FRB)의 경기부양책 등의 여파로 인해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없을 것으로 분석
  - 연준(FRB)은 뚜렷한 실업률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모기지담보증권(MBS)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
  - 이에 따라 내년 발행되는 모든 모기지의 36%를 연준(FRB)이 매입할 가능성 농후, 금리 상승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
- 한편 MBA는 내년중 모기지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
  - 실제로 지난 10월 셋째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전주대비 6bp 상승, 모기지 신청건수가 전주대비 12% 감소
  - 특히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신청이 8.3%, 채용자 수요도 12.9%나 감소한바 있음

### 2) 벤 버냉키 연준(FRB)의장, 사임 의사 표명

-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벤 버냉키 미연준(FRB)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날 것임을 지인들에게 밝혔다고 보도

- NYT 칼럼니스트 앤드류 로스 소킨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버냉키 의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기고

o 소킨 칼럼니스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로렌스 서머스 前재무장관을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

- 그는 서머스 외에도 재닛 옐린 연준 부의장, 앨런 크루거 前재무차관,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기고

o 한편 버냉키 의장은 조지 W.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연준(FRB) 의장에 오른 뒤 4년의 임기 후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면서 두 번째 임기를 부여받았고, 현재 임기는 오는 2014년 1월 종료됨

### 3) 미국,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부상 예상

o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CNBC는 금년 들어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7% 증가한 1,090만 배럴로 현재 추세라면 미국이 조만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도

- 미국은 고유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추공법 도입, 셰일층 유전 개발에 주력하는 등 지속해서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

- 미에너지부(DOE)는 국내외를 합한 미국의 내년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,1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바 있음

- 씨티은행은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 2020년이 되면 하루 평균 생산량이 1,330만~1,5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

o 현재 1위 산유국인 사우디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1,150만 배럴 수준으로 사우디가 생산량을 감소할 경우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됨

o 한편,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미국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유로존 민간경제, 경제침체 확산

- 지난 10월24일(현지시간) 마킷이코노믹스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종합한 복합 구매관리자지수(PMI) 예비치가 10월중 45.8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9월중 46.1보다 낮고, 시장 예상치 46.5도 하회하는 결과로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
- 세부항목별로는 종합고용지수, 서비스업은 상승한 반면 기업기대지수, 제조업부문은 큰 폭 하락
  - 종합고용지수가 46.4에서 47.1로 다소 높아졌고, 서비스업 PMI는 46.1에서 46.2로 소폭 상승
  - 반면 기업기대지수는 49.4에서 47.8, 제조업부문의 경우 46.1에서 45.3으로 하락

### 2) 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총재, 디플레이션 위험 경고

- 지난 10월24일(현지시간) 드라기 유럽중앙은행(ECB)총재는 이례적으로 독일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,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
  - 그는 독일 의회 연설에서 ECB의 <전면적 통화 거래(OMT) 프로그램>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, 오히려 유로존의 물가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몇몇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하락이라고 주장
  - 이는 유로존내 여러 국가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ECB의 국채 매입을 꺼리고 있는 독일을 의식한 발언
- 드라기 총재는 특히 ECB가 시장 개입을 통해 만들어낸 유동성을 다시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국채 매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다고 강조

### 3) WTO, 미-중 자동차 반덤핑관세 심리패널 구성

-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세계무역기구(WTO)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미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소송을 심리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고 발표
  - 중국은 지난해 12월 배기량 2500cc 이상의 미국산 세단형 자동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(SUV)에 대해 30억 달러 이상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음
  - 이에 미국은 <심각한 절차상 결함>이 있다고 주장, 중국을 국제 무역규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바 있음
-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제소 후 60일 동안 양자 협의 기간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함에 따라 WTO 패널의 판결을 요청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# 1) JP 모건,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량 손실 기록

- 지난 10월 23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JP모건이 중국정부가 고급 아파트 구매에 대한 강력 규제에 들어가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
  -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<묻지마식 투자>에 나섰던 일부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면서 입게 되는 잠재적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
- JP모건 자산운용은 6억 달러 규모의 <중국부동산펀드>를 출범시켜 베이징과 상하이, 난징 등 중국 곳곳의 부동산에 투자
  - 이중 중국 다롄(大連)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급 부동산 중 하나인 파크 센트럴에 8,000만 달러를 투자
  - 하지만 현재 가격 폭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지만, 중국정부의 긴축 정책이 한창 이어지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

## 2) 포드자동차, 2014년 벨기에 공장 폐쇄 결정

- 지난 10월2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포드자동차가 벨기에 켄크에 있는 공장을 2014년 폐쇄하고, 이 공장의 전체 인력 4,3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
  - 이는 침체에 빠진 유럽 자동차시장이 조만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  - 포드는 올해 유럽시장 침체로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
  - 이에 따라 켄크 공장에서 생산하던 중형 세단 <몬테오>와 웨건 <S-맥스>, 미니밴 <갤럭시> 등은 스페인 발렌시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
- 현재 유럽의 연간 기준 자동차 판매대수는 19년래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지만, 업계에서는 적어도 오는 2017년까지는 유럽 자동차시장이 금융 및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